

뉴스원고

제주 4.3사건 일반재판 수형인들에게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 제4부는
남로당의 지하선거와
무허가 집회에 참여하거나
폭도에게 식량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법원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던
59명의 직권재심에서
증거가 없다며 전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들이 당시
집행유예나 벌금형을 선고받은 뒤
행방불명되거나 목숨을 잃어
가족들의 참담함이 컸다며
잘못을 바로잡고 억울함을 푸는
출발점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TV방송 원고

여러분 안녕하세요?
제주가 한눈에 보이는 방송 <제주엔>,
오늘도 알찬 소식들로 인사드립니다.

겨울철에는 특히 헌혈 수급이 어려워진다고 하는데요,
추운 날씨에 외출도 줄고,
학생들 방학에 설 연휴까지 겹치면서
헌혈을 하는 사람이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요즘, 이 분위기를 확 바꾼 주인공이 있습니다.
요즘 젊은 세대 사이에서 인기 폭발인 디저트,
'두바이 쫄쫄 쿠키', 줄여서 두쫄쿠죠.
헌혈을 하고 나면 주는 초코과자 대신
이 두쫄쿠를 답례로 준다고 하자
헌혈자가 몰려들었다고 하네요.

두쫄쿠 사려고 오픈런 하시는 분들도 많았는데
좋은 일도 하면서 공짜로 받을 수 있는거니까
그야말로 일석이조겠죠?

생명을 살리는 달콤한 사랑실천에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기대하면서 오늘의 <제주엔> 본격적으로 시작해보겠습니다.